2026. 4. 6

금융 Weekly Insight

지정학 리스크 해결 위한 글로벌 노력 증대 – 이번주가 주요 분기점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4월 둘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 및 관련 우려는 지난주에도 지속,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3.6%, 6.1%, 4.1%의 조정 시현. 금융업종과 지정학 리스크의 접점은 경기 여파로, 이는 단순히 일부 국가 혹은 지역, 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상 전 세계적 영향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기업은 물론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은 이의 반영이며, 국내 금융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결국 금융업종의 가시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완화가 관건이 될 전망. Base Case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견조한 1Q 실적 개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시 우려 사항 점검 vs 견조한 1Q 실적: 은행주는 3.6%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이뤄질 경우, 고환율의 지속은 물론 유가의 급등, 그리고 석유 수급의 차질에 따른 관련 제품 생산 차질까지 거론. 즉, 이에 따른 여파는 단순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물론 대다수의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은행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은 단순히 소수의 국가 혹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상 전세계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이에 다수 국가의 노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는 Base case 시나리오 상에서는 은행들의 매력적인 Valuation과 더불어 양호한 1Q 실적 개선,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대한 Update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접근 필요.
- 증권 – 박스권 장세 장기화에 대한 고민: 증권 업종 주가는 6.1% 하락하며 조정세를 보임.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박스권 장세 흐름 지속에 따라 증권업종 주가 또한 부진한 모습을 시현하였음. 주간 거래대금 또한 50조원대로 하락하며 3월초 Peak 대비 50%가량 줄어든 모습. 한편,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매우 양호할 1분기 실적을 넘어 2분기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구조적 머니무브 환경에서 업종 전반에 대한 중장기 긍정적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단기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 보유 자산 관련 리스크 부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망적 접근을 권고.
- 보험 – 경기 방어적 성격 부각 기대: 보험 업종은 w-w 4.1% 하락하며, KOSPI와 유사한 흐름 시현. 보험 본업 차원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성 상승에 따른 1분기 FVPL 자산 변동성 확대 가능성 또한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매크로 리스크 장기화 시, 보험업종의 경우 환율, 금리 등 측면에서 금융업종 내 상대적 방어주 포지션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29) 은행권 희망퇴직 수가 신규채용 상회** - 4대 은행의 최근 5년간 공개채용 인원은 총 7,517명인 반면, 같은 기간 희망퇴직자는 9,012명으로 신규채용을 1,500명가량 상회. - 올해 상반기에도 3대 은행이 440명 채용 예정인 반면, 올해 희망 퇴직 확정 인원은 2개 은행 총 1,089명. 정년퇴직 및 자발적 퇴사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인력 감소 규모는 더 클 전망.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가계 금융 상품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만큼 점포 축소 및 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흐름이라 언급.	**디지털 금융 확대 속에서 불가피한 흐름:** 디지털 금융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가계금융은 물론 일부 기업금융까지도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적용. 이에 과거 은행 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는 축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 **반면, 디지털 관련 인력 확보 수요는 증가:** 반면, 디지털 금융 역량이 각 은행별로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주된 관건. 즉, 기존의 영업점 인력은 축소될 여지가 큰 반면, 디지털 역량을 강화,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 결국 이 과정에서 디지털의 내재화, 특히 기업 문화의 변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은행의 Operating 레버리지 확대 - 경기 회복 시 ROE는 기존의 고정관념 이상으로 제고 가능:** 과거 은행들은 경기 회복 시기 늘어나는 대출 등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혹은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했던 반면, 현재는 상당 부분 이러한 기능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투입되는 인건비 증가분이 급격히 감소. 이는 한 단위의 대출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극소화됨을 시사. 이에 은행들은 경기 회복 시 자산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은행들의 ROE는 10%가 적정하다는 기존의 고정관념 이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
	(3/29) 비트코인, 미국 퇴직연금 편입 가능성 증대 -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 정보규제 사무소는 노동부가 마련한 401 K 내 대체자산 투자 관련 규제안 심사를 마쳤음. 이 안은 가상자산과 사모투자 등 대체자산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 다만, 이번 조치는 최종 시행이 아닌 공식 제안 또는 가이드라인 발표 단계. - 이번 안의 핵심은 연금 운용 주체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을 때 법적 책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면책장치 도입. 만약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경우, 기업과 연금 관리자가 변동성이 큰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음. - 참고로 401K자금의 1%만 유입되어도 1,200억 달러, 원화 기준 180조 원 규모의 신규 수요가 발생.	**퇴직연금 편입 가능 자산 다양화에 초점 필요:** 금번 사안은 퇴직연금 편입 가능 자산군의 확대에 초점 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수 년간 투자 가능한 자산군이 가파르게 확대되었음. 과거 예금과 주식에 한정되었던 자산군이 이제는 글로벌 주식과 환, 원자재 등을 넘어 ETF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자산 편입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암호화폐로까지 확대. 그리고, 일부 금융 플랫폼은 이러한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상황. 결국, 퇴직연금 또한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니즈가 높아졌음을 시사. **여전히 퇴직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간 조화가 필요:** 물론, 퇴직연금은 수익성만큼 안정성이 중요. 즉, 금번의 가이드라인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한국의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 다만, 한국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 이는 여전히 국내 퇴직연금의 절반가량은 DB형이고, 전체 퇴직연금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년 기준 4% 수준으로 일각에서 추산. 결국 이러한 환경 하에서 퇴직연금은 과도하게 안정성 중심으로 수익성이 희생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다만, 지난 해부터 시작된 국내 증시의 Re-rating으로 인해 퇴직연금의 보다 공격적인 운용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보다 초점이 필요한데, 이는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특정 자산군으로의 자금 흐름이 퇴직연금 특성 상 적립식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29) 지정학적 리스크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상반기 처리 사실상 불발** -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상반기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었음.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으로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린 것. 이에 해당 법안은 빨라도 하반기는 되어야 처리가 가능. 더 나아가 정부, 여당의 합의안에 국회 입법 조사처가 위헌성을 지적,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 - 관건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20% 제한 및 34%까지 예외 허용 조항. 현재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 및 산업 혁신 저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3월 26일 발간하였는데, 지분 보유 자체 제한 방식은 재산권 (헌법 제 23조)과 기업활동의 자유 (제15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위헌성을 지적.	**디지털 자산 기대 지연 불가피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이슈 해소 필요:** 당초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 관련 법안 통과 및 속도감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하반기로 지연 불가피. 더 나아가, 하반기가 되더라도 결국 최대 관건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위헌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가 필요. **구조적으로는 변화 니즈 증폭:** 반면, 구조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일련의 변화 니즈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 필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의 법제화 및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등에 대한 법제화와 더불어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따른 기술 적용도 빠르게 변화 중. 반면, 한국은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시작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및 가상자산의 유통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 속에서 국내 금융의 도태가 우려된다는 관점에서 법제화에 대한 니즈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증폭될 수 있을 전망.
	(3/30) 하나도 배달앱 도전 - 포용금융 + 고객 확대 - 하나은행은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협업을 시작. 다만, 이는 신한은행과 같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는 아님. 즉, 동사는 이미 영업 중인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 우선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최대 225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고, 하나카드와 연계하여 전용 제휴카드를 출시 계획. - 이와 같이 대형 은행들의 배달앱 시장 참여 이유는 포용금융 실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규 고객 확보와 플랫폼 축적 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적. 실제로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 확보한 매출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 소상공인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물론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에 활용 중. - 한편,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 중개업에 한해서만 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하나은행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전통 시장 내 다양한 품목으로 컨텐츠 확장이 가능한 이점이 존재.	**소비자 행태의 변화, 플랫폼으로 - 다양한 플랫폼과의 제휴가 핵심:**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옮겨갔고, 이 과정에서 개별 앱 혹은 웹사이트가 아닌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였음. 이에 소비자의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플랫폼에 집적되는 결과로 귀결.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Seller에 대한 정보가 모두 플랫폼에 모인다는 점에 착안, 이들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금융상품의 마케팅 및 정교화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4/2)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 금융위는 26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 이는 지난 해 증가율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강화 기조를 의미. - 특히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고, 관리 단위를 월별/분기별보다 더 세분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미준수 금융사는 익월, 다음분기 목표를 조정,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유도 계획. - 또한, 가계부채비율을 25년 88.6%에서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	**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1.5% - 다만,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 판단:** 가계대출 증가율은 결국 올해 1.5%가 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 판단하는데, 이미 수 차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낮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미 2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역성장 중:** 한편,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이미 2월까지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즉, 금번 발표가 은행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새로운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은행 성장의 핵심 - 기업대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 성장은 2월까지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이의 핵심은 기업대출 성장으로 2월까지 대기업 중심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이는 연초부터 생산적 금융 강화에 대한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신규 대출 수요 및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제기 가능하지만, 생산적 금융이 초점을 두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출 수요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양질의 대출 성장 효과가 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5) 부실 부동산 PF 18.5조원 정리 - 연체율 3%대** - 금융위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5년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3.88%로 36bp q-q 하락하였고 이는 25년 고점인 3월 4.49%대비해서도 크게 개선된 수준. PF 익스포저는 174.3조원으로 3.6조원 q-q 감소. 신규취급보다 사업 완료 및 정리/재구조화가 더 많이 이뤄졌음. - 부실 PF 사업장 정리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 C와 D등급 사업장 중 18.5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었고, C와 D등급 사업장 PF 규모는 3분기 연속 감소, 14.7조원으로 감소, 전체 익스포저대비 비중이 8.4%까지 낮아졌음. - 금융당국은 부실사업장 정리와 함께 PF건전성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 올해 업권별 감독 규정과 세칙, 모범규준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20%까지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이 시행 예정.	**부동산 PF관련 리스크는 감소세 지속:** 부동산 PF 중 C및 D등급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지속되며 관련 리스크 또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실제로 은행들의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올해 관건은 보유 증권사 등 비은행 계열사의 PF관련 충당금 감소에 대학 확인이 될 전망. **비은행 부문 부동산 금융 관련 손실 축소가 실적 개선으로:** 25년까지 금융그룹 충당금 중 절반 이상은 비은행 계열사에서 발생.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은행업 평균적으로 30%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비은행 부문의 충당금 규모가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 다만, 이에 대한 상당 부분은 부동산 금융에 기인하는 만큼, 부동산 금융 시장의 개선에 따라 비은행 부문의 충당금 감소, 연결 기준 이익의 개선을 기대 가능. 즉,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가시화가 ROE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 필요.
증권	**(4/1) 금감원, IMA 증권사 소집, 사모대출 등 해외자산 리스크 관리 주문** -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IMA 사업자 3곳의 운용·리스크 담당자를 소집 - 해외 사모대출 등 고위험 자산 편입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주문. 개인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54억원에서 2025년 말 4,797억원으로 3.2배 급증한 가운데, 미·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배경. - 금감원은 정보 불투명성·위험 과소평가·국내 통제력 한계를 3대 리스크로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방지 및 투자자 적시 안내 강조. - 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만 IMA 자금 일부를 해외 사모대출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은 국내 자산 위주로 운용 중.	**당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중장기 수익성 고민:** IMA 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도 본격화.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이 있는 한투 증권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다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중장기 IMA 운용 선택지 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확보 전략에 대한 고민 확대될 전망.
	(4/2) ISA 전면에 내세운 '고객 쟁탈전' 증권사, 자금 유입 총력 - 정부의 국민성장 ISA·청년형 ISA 신설 추진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이 사실상 제로 수수료 수준의 혜택을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본격 돌입. -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수수료 0.0036% 연말까지 연장,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은 신규 계좌 고객 대상 평생 수수료 우대 적용, 키움증권은 타사 이전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혜택 제공. - 중개형 ISA는 개별 주식 투자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구조적 특성상, 이번 경쟁은 증권사 수신 기반 확대와 연결. 국내주식 배당·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확정 시 ISA 자금 유입 추가 가속화 전망.	**장기 고객 기반 확충 과정:** 수수료 출혈은 단기 부담이나, ISA 내 주식·ETF 투자 활성화 지속 시, 이에 따른 수수료, 보수 수익 확대로 상쇄 가능.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전 구조 활성화 시 증권사 퇴직연금 점유율 추가 상승으로도 연결 가능. 대형사들의 ISA 유입 성과 및 계좌 순증 추이를 1분기 실적 시즌에서 확인 필요.
보험	**(4/2) 금리 오르자 보험사 킥스 개선 현대해상·동양생명 '휴~'** - 2025년 말 기준 주요 보험사 K-ICS(킥스) 비율이 금리 상승 및 실손 리스크 산출 기준 명확화 영향으로 전반적 개선. - 현대해상은 157%에서 190.1%로 33.1%p 상승, 동양생명은 155.5%에서 177.3%로 21.8%p 개선. - IFRS17·K-ICS 제도 하에서 금리 상승 시 부채 현재가치가 자산 대비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가용자본 확대가 구조적 배경. - 다만 2027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 규제 강화 시, 자본성 증권 의존도 높은 일부 보험사는 추가적인 자본 적정성 압박 직면 가능성.	**금리 상승기 수혜에 주목:** 자본 압박이 존재했던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세에 힘입어 여력이 개선되고 있음. 작년말 대비 연초 추가적인 장기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보험사들의 자본 압박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해약환급금준비금이라는 본질적 배당 제약 요인이 존재하나, 해당 규제 완화 시 유연한 자본정책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

보험	**(4/2) 마운자로까지 보장…10조 적자 실손보험 이번엔 해법될까** - 손보사 실손보험 적자가 최근 5년 누적 1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5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1·2세대 가입자 대상 계약재매입(5세대 전환 시 보험료 3년간 50% 할인) 추진. -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 허가를 받아 비급여 청구 가능, 손보 4사 청구 건수가 2025년 8월 24건에서 2026년 2월 3,264건으로 급증하는 등 신규 손해율 악화 요인 확대 중. - 보험업계는 역선택 우려를 이유로 계약재매입에 반발, 시행 시점 연기 및 인센티브 기간 단축 등 수정안을 금융당국에 제시한 상황.	**계약재매입 추진은 보험사 입장에서 단기 재무 불확실성 확대 요인:** 단기적으로 우량 계약자의 5세대 이탈 시 역선택 현실화 가능성 및 잔존 계약 손해율 상승 가능성. 실손 비중이 높은 손보사를 중심으로 계약 전환율 및 손해율 추이 점검 필요하며, 계약재매입 구체 조건 확정 전까지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4-06 (월)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홍콩, 대만 증시 휴장
2026-04-07 (화)	KDI 경제동향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3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미국 2월 소비자신용지수
		유로존 3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독일 3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영국 3월 CIPS/S&P 글로벌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일본 2월 가계지출
		일본 3월 외환보유액
		일본 2월 경기동향지수(예비치)
		홍콩 증시 휴장
		중국 3월 외환보유액
2026-04-08 (수)	2월 국제수지(잠정)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2월 소매판매
		유로존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비통화정책회의
		독일 2월 공장수주
		영국 3월 할리팩스 주택가격지수
		일본 2월 경상수지
		일본 2월 경기현황지수
2026-04-09 (목)	옵션 만기일	미국 4분기 GDP 확정치
	2025년 자금순환(잠정)	미국 2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3월 금융시장 동향	미국 2월 도매재고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2월 산업생산
		일본 3월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3월 공작기계수주(예비치)
2026-04-10 (금)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3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미국 2월 공장주문
		독일 2월 경상수지
		독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일본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일본 3월 은행대출
		중국 3월 소비자물자기수·생산자물가지수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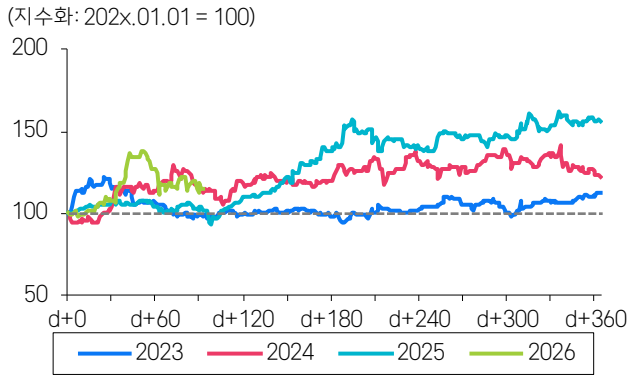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294.5	5,377.3						(1.1%)	5.6%	116.2%	27.6%
	KRX은행	194.1	1,498.1						(3.6%)	3.0%	77.1%	14.9%
	KRX증권	88.0	2,499.3						(6.1%)	8.1%	225.3%	63.4%
	KRX보험	94.3	3,090.2						(4.1%)	1.8%	77.3%	15.4%
	결제 지수**	1.329	n/a						(6.3%)	(2.8%)	53.7%	1.2%
은행	KB금융	54.2	145,500	57.9	0.9	11.1	8.0	11.9	(4.4%)	5.7%	88.7%	16.7%
	신한지주	43.6	91,800	54.4	0.8	10.3	7.8	14.9	(1.8%)	3.4%	93.1%	19.4%
	하나금융지주	30.5	109,700	50.1	0.7	10.5	6.8	11.7	(0.6%)	4.0%	86.2%	16.6%
	우리금융지주	23.5	31,950	42.2	0.7	10.3	6.9	9.3	(4.9%)	0.5%	92.1%	14.1%
	기업은행	17.0	21,350	35.5	0.6	8.9	6.4	5.3	(9.3%)	(4.7%)	48.4%	1.9%
	BNK금융지주	5.5	17,600	45.3	0.5	8.8	5.7	18.3	(5.8%)	(0.2%)	78.5%	10.9%
	JB금융지주	5.5	29,200	42.4	0.5	9.1	5.3	15.1	(6.1%)	3.2%	61.1%	13.8%
	iM금융지주	2.7	16,650	50.8	0.9	13.4	7.2	8.7	(5.8%)	2.3%	86.0%	7.1%
	카카오뱅크	11.2	23,450	50.0	1.5	7.8	20.4	14.0	(4.9%)	5.6%	7.3%	8.6%
증권	미래에셋증권	35.0	63,100	60.9	2.7	12.9	22.0	17.5	(6.0%)	12.2%	578.5%	171.4%
	NH투자증권	10.7	29,950	41.1	1.4	12.9	11.2	14.9	(12.6%)	4.0%	122.7%	41.9%
	한국금융지주	11.8	212,000	25.0	1.2	14.2	9.7	-19.1	(3.6%)	2.7%	190.0%	31.1%
	키움증권	10.8	412,000	29.5	1.6	20.7	9.0	26.4	(5.3%)	10.6%	234.4%	42.3%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0	112,300	50.0	1.7	22.8	8.2	14.9	(3.5%)	2.3%	(5.7%)	(0.7%)
	삼성화재	20.3	441,500	45.1	1.0	10.1	10.9	12.0	(0.3%)	(5.7%)	23.7%	(11.2%)
	삼성생명	44.2	221,000	46.3	0.6	3.7	15.9	17.8	(0.9%)	11.9%	171.8%	40.2%
	DB손해보험	11.2	162,000	32.3	1.1	16.6	6.6	9.0	(6.3%)	(7.7%)	86.6%	23.6%
	한화생명	3.9	4,470	16.4	0.3	5.6	6.3	37.8	(5.3%)	7.1%	75.0%	37.3%
	현대해상	2.7	29,900	11.7	0.5	17.5	3.3	18.3	(4.9%)	2.4%	38.7%	(2.9%)
결제	카카오페이	6.5	47,900	n/a	n/a	5.6	64.5	57.5	(10.5%)	(8.4%)	56.8%	(2.4%)
	NHN KCP	0.6	15,430	n/a	n/a	17.2	11.1	16.1	(9.5%)	(7.1%)	100.4%	3.5%
	KG이니시스	0.3	10,290	n/a	n/a	7.5	4.7	5.5	(0.1%)	3.0%	24.7%	0.7%
	KG모빌리언스	0.2	4,865	n/a	n/a	10.7	4.4	8.1	(1.8%)	3.5%	22.1%	3.5%
	나이스정보통신	0.2	24,050	n/a	n/a	9.2	5.4	29.7	(7.7%)	(2.4%)	38.5%	(5.1%)

참고: 4/3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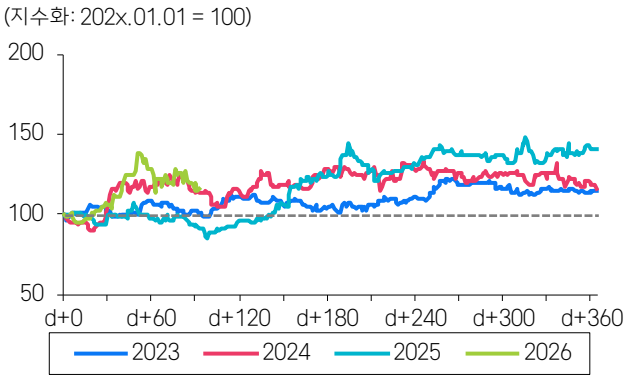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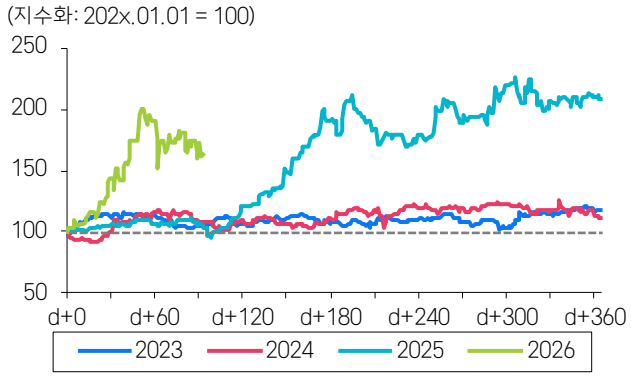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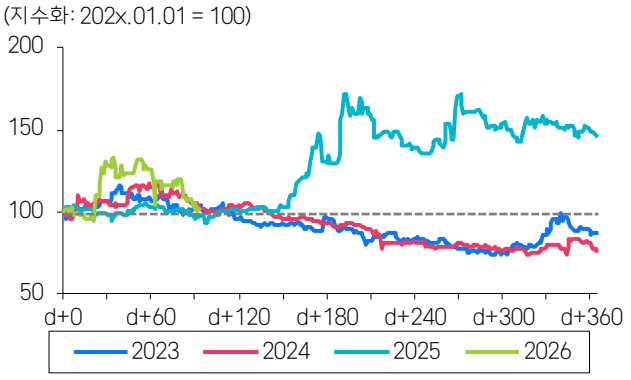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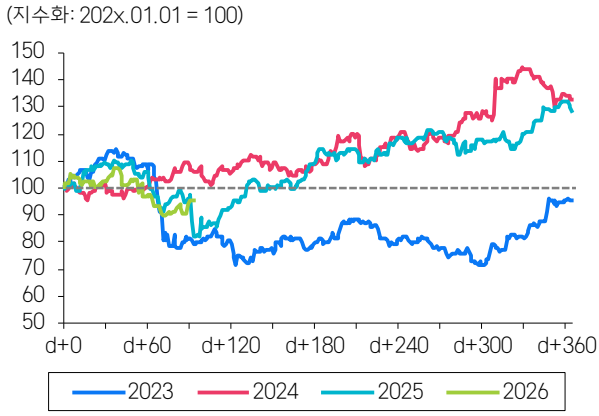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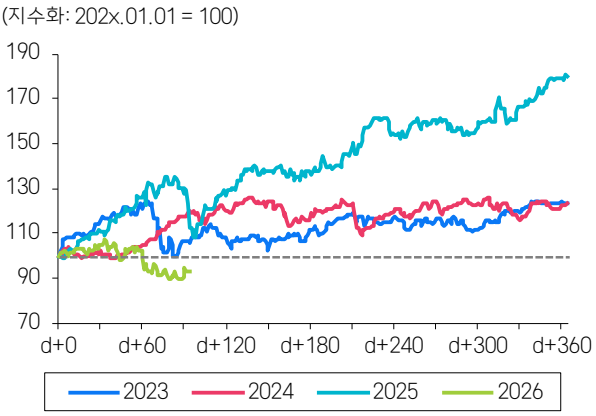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794.5	83.8	2.2	16.4	13.7	7.6	4.2	0.4	40.1	(8.6)
		Bank of America	352.9	98.5	1.2	11.3	11.4	14.0	5.1	(0.9)	43.6	(10.2)
		Citigroup	201.6	120.4	1.0	9.2	11.3	46.5	7.3	5.8	98.3	(1.2)
		Wells Fargo	248.7	97.8	1.4	12.7	11.5	11.7	4.4	(1.8)	32.2	(13.5)
		PNC Financial	85.4	70.0	1.4	12.8	11.6	9.7	4.6	(0.3)	38.3	1.4
	유럽	Banco Santander	166.3	62.8	1.3	13.4	9.3	9.4	4.4	2.4	78.6	(2.5)
		Unicredit	109.0	84.3	1.4	16.6	8.4	5.4	4.1	(5.2)	42.8	(11.6)
		BBVA	122.0	86.0	1.8	19.2	9.2	15.4	4.8	2.2	65.2	(6.4)
		ING Group	77.3	81.3	1.3	12.8	10.1	4.5	5.6	1.1	44.9	(3.8)
		Lloyds	76.0	84.0	1.3	13.7	10.2	41.9	8.3	1.1	50.7	(0.3)
		Barclays	74.2	64.1	0.8	10.7	9.1	21.0	6.9	(2.0)	63.5	(14.1)
	일본	Mitsubishi UFJ FG	205.2	60.8	1.5	10.8	14.1	22.2	1.7	0.1	65.5	10.8
		Sumitomo Mitsui FG	128.7	54.2	1.3	10.7	13.0	37.1	2.4	(0.9)	71.9	6.6
		Mizuho FG	100.8	68.7	1.5	10.9	13.6	35.4	1.4	(1.3)	97.4	13.5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5.8	30.6*	0.6	8.9	6.8	2.6	5.1	8.6	27.5	10.7
		China Construction Bank	288.7	29.8*	0.6	9.4	6.5	0.6	4.4	6.8	22.3	9.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43.1	30.6*	0.7	9.7	7.1	3.1	5.6	8.2	23.2	(1.7)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29.7	N/A	1.4	6.0	22.8	(32.5)	1.8	(4.6)	(3.5)	(5.1)
		AIG	40.3	76.3	0.9	10.1	9.9	흑전	3.4	(5.8)	(4.5)	(11.8)
		Travelers Insurance	63.6	77.9	1.7	17.7	10.7	(0.1)	3.1	(4.1)	21.4	1.4
	유럽	Allianz	161.5	80.8	2.2	18.5	12.1	10.3	4.8	5.8	10.7	(5.8)
		AXA	97.7	59.3*	1.7	17.1	9.8	(8.6)	6.7	6.9	7.8	(1.1)
		Generalli	64.0	58.5*	1.6	14.1	11.7	11.1	6.8	8.1	17.7	0.2
	일본	Tokio Marine	87.7	40.5*	2.6	19.7	13.6	(2.1)	(3.6)	17.4	40.5	24.5
		Daiichi Life Insurance	33.4	58.9	1.4	12.0	12.8	(0.9)	1.7	(4.4)	52.5	13.0
	중국	Ping An Insurance	145.9	35.9*	1.0	13.8	7.4	6.4	1.5	(6.9)	28.4	(7.6)
		China Life Insurance	133.7	19.9*	1.0	19.5	5.5	(16.2)	0.0	(13.2)	64.5	(8.7)
		PICC P&C Insurance	41.2	38.3*	1.0	13.9	7.5	6.7	(2.0)	(8.0)	(3.9)	(11.3)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64.6	97.5	2.3	16.2	14.7	14.2	7.5	3.3	83.3	(1.8)
		Morgan Stanley	263.3	72.2	2.4	16.9	14.6	11.2	4.7	2.0	66.1	(6.6)
		Charles Schwab	167.8	98.5	3.4	21.8	16.4	22.6	1.5	(1.7)	35.8	(6.1)
		Robinhood	62.1	42.8	5.7	21.2	29.8	12.7	4.4	(14.5)	99.7	(39.1)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05.9	82.5	5.9	34.9	17.0	14.5	2.7	(2.3)	28.5	(18.9)
결제	미국	VISA	587.2	21.7*	14.2	60.5	23.8	24.0	1.8	(5.9)	(3.9)	(14.2)
		MasterCard	440.1	17.6*	40.3	190.1	25.6	16.7	1.9	(6.0)	0.7	(13.6)
		PayPal	41.7	5.2*	1.9	23.1	8.7	(4.1)	4.0	(4.8)	(22.3)	(22.3)
	유럽	Adyen	30.8	0*	4.1	21.4	21.5	17.0	(1.2)	(9.2)	(32.9)	(38.5)
핀테크	미국	Block	35.8	0*	1.5	10.0	18.1	57.1	6.8	(11.3)	18.9	(8.2)
		Upstart	2.5	0*	2.8	20.3	24.8	129.3	3.3	(10.6)	(26.5)	(41.5)
		Affirm	15.4	0*	3.9	10.6	41.8	638.1	8.9	(11.8)	29.5	(37.8)
	중국	LuFax	1.6	N/A	N/A	N/A	N/A	흑전	2.2	(24.4)	(29.5)	(27.3)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4/3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